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

Civil Society Policy Recommendation on the Occasion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 Enhancing Support for African Students in Korea >



제출일자 : 2024년 5월 17일 (금)

Date : May 17, 2024

제안기관 :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Proposer : Africa Insight

수신기관 : 대한민국 외교부

Recipient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Policy Recommendation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

1. 정책 제안 배경

1.1. 아프리카는 지구촌의 미래를 결정할 대륙입니다.

-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5세 이하인 젊은 대륙이며,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청년의 약 절반이 아프리카 출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¹⁾
- 아프리카는 청년뿐 아니라 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문화 등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아프리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와 이주위기, 감염병위기와 같은 글로벌 위기의 최전선인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위기의 향방과 지구촌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1.2. 이주는 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원동력입니다.

- 캐나다, 독일, 일본, 대만 등은 출생률 감소와 그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의 유치와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국외 이주민이 자국의 가족 등에게 보내는 송금은 남반구 국가 및 가계 경제의 주요 자원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 출신의 이주민이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 규모는 공적 개발원조(ODA)와 비슷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가치를 상회하며, 각국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²⁾
- 다양한 관점과 기술, 문화와 함께 이동하는 이주민은 이주한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출신 국가에도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³⁾
- 한국 또한 2028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보건복지, 제조, 도소매, 전문 과학기술 분야의 추가 필요 인력이 클 것으로 예상⁴⁾되는 만큼 경제와 인구 구조에 맞는 이주 정책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3. 하지만,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에티오피아의 6.25 전쟁 파병과 남한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전을 펼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 Roca, &Schultes. (2020). AFRICA'S YOUTH: ACTION NEEDED NOW TO SUPPORT THE CONTINENT'SGREATEST ASSET. Mo Ibrahim Foundation. <https://mo.ibrahim.foundation/sites/default/files/2020-08/international-youth-day-research-brief.pdf>

2) IFAD. (2021).Remittances, Invest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FAD FinancingFacility for Remittances. <https://www.ifad.org/documents/38714170/39148759/Remittances%2C+investments+and+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pdf/680f2e3f-38dc-42c2-9857-df9580d35a45>

3) IOM. (2019). WorldMigration Report 2020. IOM.https://publications.iom.int/system/files/pdf/wmr_2020.pdf

4) 한국고용정보원. (2024).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전망. 한국고용정보원.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9237#:~:text=R2403848.pdf,-,R2403848%2D1.pdf,-%EA%B4%80%EB%A0%A8%EC%A3%BC%EC%A0%9C%EC%8B%9C%EA%B3%84%EC%97%B4>

- 2006년 한국과 아프리카의 장관급 외교 프레임워크인 한-아프리카 포럼의 첫 개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한-아프리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對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200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 체류 아프리카인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 하지만, 한국의 아프리카 직접 투자는 전체 직접 투자의 1% 정도로 정체되어 있고, 아프리카 출신의 이주에 관해선 절반가량의 국민이 부정적 인식을 표출⁵⁾하기도 하는 등, 동등한 파트너십 형성과 자연스러운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더 큰 노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1.4. 특히, 한국을 이미 찾아온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조차 한국에서의 공부와 취업,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이 한-아프리카 관계 심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출신 대륙으로는 아시아의, 전공으로는 인문사회계열의 비중이 큰 국내 유학생 구성⁶⁾에서 이공계열을 선호하는 아프리카 유학생⁷⁾의 존재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하지만, 많은 아프리카 유학생은 언어와 문화 차이, 구직과 취업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세심하지 못하거나 경직된 제도, 인종차별, 국적차별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졸업 후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북미나 유럽 국가로 떠납니다.
- 국내 아프리카인 커뮤니티의 주축을 맡고 있는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지원은 아프리카인 커뮤니티 전반의 강화와 국내 아프리카인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정체된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재정의할 기회입니다.

- 처음 열리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정체된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재정의할 기회이며, 회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사람이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아프리카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체된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향후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 심화를 위해선 이를 주도하고 지지하며 실행할 사람이 많아지고, 또 다양해져야 합니다.
-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수많은 약속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는 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의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여

5) 김지윤, 강충구. (2018) 달린 대한민국 II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18-26).

6) 관계부처 합동. (2023).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Project. 관계부처합동.

7) 인터뷰 및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n.d.)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Insights 2021-2022.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https://institutions.educations.com/student-insights-2021>

러 차례 선언한 인적교류 확대(정부 초청 장학금 사업 확대, 과학기술분야 직업 기회 및 교환 프로그램 장려 등)를 이행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6. 아프리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 시행과 확대를 제안합니다.

- “아프리카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아프리카인사이드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한국을 찾는 아프리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새로운 한-아프리카 관계의 초석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학업을 통해 충분한 적응 기간과 역량을 가진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오래 체류한다면 국내 경제와 사회, 문화, 그리고 한-아프리카 관계에 더 많이 기여할 뿐 아니라, 추후 한국을 떠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활용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이번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논의와 경험은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풍부한 한국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2.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잠재력

2.1. 국내 체류 아프리카인의 낮은 비중과 편중된 구성

- 국내 체류 아프리카인의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지리적 한계와 비우호적인 비자 정책, 한국-아프리카 간 교류 정체 등으로 인해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아프리카인의 비율은 여전히 1%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 국내 체류 아프리카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에게 발급되는 기타 비자(G-1)와 유학 비자(D-2)로 체류하는 사람으로, 특정활동(E-7)·거주(F-2)·영주(F-5) 등 직업 활동이나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 일본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일본 내 체류 아프리카인의 수는 21,239명(전체 재일 외국인의 0.66%)으로 한국보다 적고, 아프리카 국가 출신 유학생은 2,834명으로 비슷하지만, 직업 활동 및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1,686명, 영주자 5,708명, 정주자 1,187명 등)로 체류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⁸⁾

연도	계	유학 (D-2)	특정 활동 (E-7)	거주 (F-2)	영주 (F-5)	기타 (G-1)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비율
2013	10,880	1,336	147	116	56	1,253	0.69%
2014	12,744	1,519	149	171	60	2,383	0.71%
2015	14,185	1,788	175	214	71	3,834	0.75%
2016	16,073	2,057	180	255	75	5,340	0.78%
2017	18,198	2,400	209	317	87	6,186	0.83%
2018	19,916	2,474	208	402	90	7,180	0.84%
2019	20,671	2,491	215	492	107	7,159	0.82%
2020	19,065	2,070	222	534	117	6,460	0.94%
2021	19,258	2,301	257	583	143	5,650	0.98%
2022	22,436	2,706	297	678	195	5,497	1.00%

출처: 법무부. (2022).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8) 出入国在留管理庁.(2023). 在留外国人統計(2023年6月末). https://www.moj.go.jp/isa/policies/statistics/toukei_ichiran_touroku.html

-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리카인의 수는 적지만, 이들이 가지고 오는 관점과 기술, 문화는 한국이 풍부한 다양성을 갖춘 포용적 사회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아프리카인들이 한국에서 식당이나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의 문화를 한국에 전파했고, 더 많은 아프리카인이 국내의 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다면 사회, 문화와 글로벌 관계 등에도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2.2. 적고 제한된 교류와 정보로 인한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

- 일상에서 아프리카인과의 다양한 교류가 미미한 상황에서 국내외 아프리카 난민이나 아프리카 각국의 빈곤 문제가 부각되며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됩니다.
- 2017년의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설문 참여자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중동66.7%, 아프리카49.8%) 북미와 유럽 등 다른 대륙 출신 이주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⁹⁾
-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주관식 설문을 진행한 2023년 조사에서는 가난하고 낙후된 이미지(가난, 빈곤, 저개발 등)가 2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원 열대우림 등 자연 관련 이미지(25.2%), 덥고 척박한 이미지 (21.9%) 순으로 많았습니다. ‘개발 가능성’이나 ‘자원이 많음’ 등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의 응답은 0.5% 미만에 그쳤습니다.¹⁰⁾
- 다수의 국내 아프리카인이 주거와 취업 등 일상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를 언급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신고·상담할 창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너무 거절이 심하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 구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아또 집 구해야 하는데, 똑같은 기분 느끼겠구나. 한열 개 정도 마음에 드는 집 구하면 아홉 개 정도는 거절할 거예요. 살고싶은 곳에 살 수가 없고 집주인이 저를 고르는 느낌이 들어요.”

- GKS 장학생으로 공부한 뒤 한국에 취업한 중앙아프리카 출신의 B씨

2.3. 정부장학금(GKS)의 낮은 아프리카 할당 비율

- 과거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여러 차례 아프리카 유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인 Global Korea Scholarship(GKS)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배분되는 선발 대상 인원은 110여 명, 전체 선발 인원의 15%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9) 김지윤, 강종구 (2018) 탈한 대한민국 II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18-26).

10) 장용규, 허성용, 김수원, 최동환, 우승훈, 양지예 (2023)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대국민인식 강화 방안, 우분투 아프리카연구소.

“GKS 국가별인원 배정이 정확히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는 모르지만, 배정된 인원 수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험한 나라로 생각한다는 생각과 양국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KS 장학생으로 공부한 뒤 한국에 취업한 동아프리카 출신의 A씨

역대 한-아프리카 포럼의 인적 교류 확대 관련 약속

- 정부 초청 장학금사업 확대 (제2차 KAF,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구상 2009-2012”)
- 아프리카 학생과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 장학 프로그램 확대 (제3차 KAF, “Action Plan for the Third Africa-Korea Forum 2013-2015”)
- 한-아프리카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인적교류 증진의 필요성 재인식, 아프리카 유학생 및 한국 유학생의 참여 가능한 장학프로그램 교환 (제4차 KAF, “Addis Ababa Declaration”)
- 아프리카 학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교환 프로그램과 한국-아프리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촉진 (제5차 KAF, “Framework of Cooperation 2022-2026”)

- 학부 대상 GKS(GKS-U)의 경우 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4분의 1정도에서만 선발되는 경우도 많으며, 국가별 선발인원은 전반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학비와 생활비가 상당 기간 보장된다는 점 등으로 GKS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있지만, 이렇게 국가별로 선발인원을 적게 할당하거나 때때로 비선발하는 상황은 아프리카 각국 청년이 한국 유학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연도	2021		2022		2023		2024	
구분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전체 선발인원	125	663	125	648	81	650	86	800
아프리카 TO 및 비율	19 (15.2%)	92 (13.9%)	19 (15.2%)	96 (14.8%)	14 (17.3%)	98 (15.1%)	15 (17.4%)	111 (13.9%)
대상 아프리카 국가 수	14	38	14	32	14	34	14	34

출처: Studyin Korea의 연도별 GKS 선발 공고

- 2023년 정부가 발표한 Study Korea 300K Project¹¹⁾와 연계하여 기존에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제공한다면 해외 인재 확보, 대학의 글로벌 역량 제고 등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높은 이공계열 선호도¹²⁾는 한국 정부가 인재를 양성·유치하고자 하는 제조업, 첨단·신기술 분야와 연관성이 큼니다.

Subject Interest
Which subject area do you want to study?

Health & Medicine	21.00%
Business & Administration	15.80%
Engineering	11.92%
Computer Science & IT	11.42%
Other Social Science	6.40%
Natural Science	5.67%
Law	4.73%
Art & Design	4.65%
Humanities & Culture	4.18%
Teaching & Education	3.65%
Tourism & Hospitality	3.18%
Media & Communications	3.10%
Languages	2.13%
Transport & Logistics	1.55%
General Studies	0.61%
Total	100.00%

출처: InternationalStudent Recruitment

2.4. 학업 및 한국 적응의 어려움

-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의 경우 타 대륙 출신 유학생보다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적은 경우가 많고 언어와 문화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학 과정에서 배우는 생활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없음에도 영어로 개설된 수업이 많지 않아 학교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정부 장학금으로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고 취업 및 정착가능성이 높은 북미나 유럽 국가로 재이주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지한파”를 만들겠다는 GKS 장학금의 취지와도,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풍부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지향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11) 2023년 8월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12) 인터뷰 및 InternationalStudent Recruitment. (n.d.) International Student Survey Insights 2021-2022.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https://institutions.educations.com/student-insights-2021>

“처음에 어학 과정 할 때는 다들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일도 해야지 하는데, 각자학위 과정을 시작하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소속감이 없다는 고민을 하면서 공부 마치면 다른 나라로 다른 학위를 하러 가거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근데또 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면서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 GKS 장학생으로 공부한 뒤 한국에 취업한 동아프리카 출신의 A씨

“언어의 장벽이나 구직의 어려움, 구직 기간의 여러 부담으로 인해 많은 유학생이 한국을 떠나 프랑스나 독일, 캐나다 같은 곳으로 가요.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교육하고선 다른 나라로 가게 하는 건 한국 입장에서 좋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 GKS 장학생으로 공부한 뒤 한국에 취업한 서아프리카 출신의 C씨

- 많은 어려움에 비해 정부와 학교의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아프리카 유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나 종교활동, 아프리카 커뮤니티와의 교류, GKS 멘토링 등을 통해 학업 및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2.5. 구직과 취업의 어려움

- 학교 졸업 이후 많은 아프리카인은 높은 한국어 실력 요구, 전공 관련 업무의 좁은 해석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제한, 인턴십 경험 미비, 인종차별 등으로 구직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처음 유학을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졸업할 때쯤 되면 한국어를 얼마나 하는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외국인이라고 느끼고, 한국에서의 진짜 경력을 쌓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살지만 한국에 사는 것 같지가 않고, 한국인의 삶에 제대로 녹아들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 GKS 장학생으로 공부한 뒤 한국에취업한 서아프리카 출신의 C씨

- 국내에 아프리카인 등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가 많지 않고, 채용되더라도 비자를 변경(구직비자 D-10에서 특정활동 비자 E-7로)하는 과정에서도 고용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과도하고 심사 또한 까다로워 실제 취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 선택이 비자 발급 당국의 출신 학과나 모국어 등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일상에서도 영어로 소통하는 아프리카 국가가 많음에도 외국어 지도에 필요한 회화지도(E-2) 비자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에게만 발급되는 문제도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국내 활동과 정착을 제한하고 그들

이 차별을 느끼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 2022년 우간다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가 “단지 우간다 국적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로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회화지도 비자의 발급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 취업 이후에도 조직 내 외국인직원이 적고 야근이 당연시되는 등의 조직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기업에 아프리카 국가 등 출신의 외국인 직원이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 영어 및 불어와 같은 언어역량뿐 아니라 해당 언어권의 비즈니스 문화에도 익숙한 아프리카 이주민들은 국내 기업의 일반 업무 뿐 아니라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의 적응-취업-정착 지원 정책 제안

3.1. GKS 장학금 아프리카 선발 확대 및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GKS 장학금 아프리카 선발 규모 확대: 현재 연평균 110여 명인 GKS의 아프리카 선발 규모와 선발국을 확대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정립될 한-아프리카 관계를 반영하고 아시아에 편중된 국내 유학생 비율을 다변화합니다.
-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언어와 문화 등에서 타 대륙 출신 유학생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을 위해 선발 직후부터 한국 도착 이후까지 추가 언어 교육과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내의 다양한 아프리카인 커뮤니티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아프리카인 커뮤니티

- 연합: African Voices in Korea (AVOIK)
- 가나: Ghanaian Students in Korea and Associates (GHASKA)
- 에티오피아: Ethiopian Students Association in Korea (ESAK)
- 케냐: Kenya Community in Korea (KCK)
- 우간다: Ugandan Community in South Korea (UCSK)
- 르완다: Rwanda Community Abroad - South Korea (RCA-SK)
- 탄자니아: Association of Tanzanians in the Republic of Korea (TANROK)
- 잠비아: Zambia Korea Network (ZKnetwork)
- 가봉: SAMBA-COREE (Gabonese Community)
- 콩고민주공화국: Congolese Elite Community in South Korea (DECOC)
- 부룬디: Burundian Diaspora in Korea(BD-Korea)
- 나이지리아: Nigerians in Diaspora Organization (NIDO)
- 나이지리아: Nigeria Students' Association
- 라이베리아: Liberian Association in South Korea
- 시에라리온: Sierra Leonean Community
- 세네갈: SEN CORÉE
- 짐바브웨 : Zimbabwe-Korea Diaspora Community
-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은 다수의 소규모 커뮤니티가 존재
- 그 외에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음

3.2. 아프리카 유학생의 취업 연계 강화

- 인턴십 프로그램: 학위 과정 중 및 졸업 후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유학생들이 실무경험과 한국 사회 경험 축적을 통해 국내외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Young Professional이나 대학별 산학협력, 단체 및 지역별 세계시민교육 등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유학생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기한(6개월 이상) 보장과 업무 내용 심사(번역, 통역 등 단순업무 지양), 호스트 기업,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지역(아프리카) 특화 취업박람회 개최: 아프리카와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진출 예정인, 혹은 외국인 채용에 관심 있는기업 및 단체를 모아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아프리카 출신 구직자에게 더 적절한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출신 구직자가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등 취업 전반에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지역별 청년센터나 아프리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설하여 상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업 관련 비자 발급 심사 시 직업 선택의 자유와 당사자(고용인과 피고용인)간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3.3. 아프리카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기업의 외국인 채용 및 글로벌화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과 사내 문화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언어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외국인 고용의 부담을 줄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신고·상담 창구 마련: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로부터 이주민을 보호하고 공식적 대응의 근거를 제공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각종 차별이나 제한을 겪을 때 아프리카인들이 연락할 수 있는 신고·상담 창구가 법 집행 기관뿐 아니라 한-아프리카재단이나 관련 민간단체, 지역 외국인센터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 균형 잡힌 아프리카 인식 형성을 위한 노력: 세계시민교육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하고,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도 아프리카를 비하하거나, 빈곤·기아 같은 부정적 내용을 극대화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합니다.

4. 기대효과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방문객” 중

4.1. 포용적이고 다채로운 사회로의 첫걸음

- 다른 관점과 문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갖는 사회·문화·경제·정치적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찾은 많은 아프리카인은 한국 사회의 높은 벽에 막혀 이내 한국을 떠납니다. 어렵게 만나고도 서로를 낯설어하며 스쳐 지나가는 대신, 아프리카인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현대의 정책과 환경이 마련된다면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한국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여기며, 더 자주 찾고 더 오래 머물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국내 아프리카인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뿐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내 아프리카인 커뮤니티 전반의 역량과 안정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2.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를 갖춘 “지한파” 혹은 한-아프리카의 연결자 양성

- 학교 공부만으로는, 학위만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뜻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인 유학생들도 한국에서 공부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교류, 그리고 다양한 일, 문화, 사회 활동을 통해 배움과 경험을 쌓을 때 비로소 세계 어디서든 성숙한 시민으로,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내의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각국과 한국의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4.3. 변화하는 한국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의 필요 대응

- 한국에서 수년간 공부하며 일종의 적응기간을 가진 아프리카 유학생이 졸업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일하며 살아간다면, 한국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프리카인이 국내 기업에서 일한다면, 단순히 노동력의 확보 뿐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인 직원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아프리카 각국 진출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직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내부 문화부터 글로벌화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ان기관 소개: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africainsight.org)

2013년 4월 설립 된 외교부 등록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아프리카 지역과 주제를 전문으로 국제협력과 옹호 활동을 펼치는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설립 이래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개선, 권리옹호, 역량강화,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유네스코 지속가능교육(ESD) 인증 프로젝트 <우분투 아프리카 세계시민교육>
- 국내 가장 큰 규모의 연례 아프리카 문화 축제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
- 국내 거주 아프리카인 연합 커뮤니티/플랫폼 <African Voices in Korea>
- 아프리카 인식제고, 외교정책 연구 수행 <우분투 아프리카연구소>

연구 및 정책제안

<아프리카 인식제고 방안과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 (2020년 11월)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계기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2022년 3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대국민 인식 강화방안> (2023년 8월)

5. 공동제안자

- 공동제안기관/단체 (대표자) (22개)

국제보건애드보커시 (한희정),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장재옥), 맨스-케이 익스프레스 글로벌 (퀘이시 멘사), 블리스 (안현규), 사단법인 텐포원 (한상훈), 삼바코레 (밀란두 키스 무사부 부수구), 선 코리아에셋 (이영환),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동훈), 아프리카댄스컴퍼니 따그 (권이은정),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강백), 이룸문화교류협회, 재한가나유학생회 (리차드 카부티), 재한외국인 및 유학생지원센터 (이소영), 켄베콜라 (신보섭), 주식회사 제리백 (박중열), 주한르완다커뮤니티 (베니마나 디에도네 테오스), 주한케냐커뮤니티 (와이클리프 프랜시스), 주한에티오피아학생회, 짐바브웨-대한민국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자프터 오레인 프란시스), 진천주거복지센터두꺼비하우스 (김덕수), 커커필드 (최영순), 키자미테이블 (엄소희)

- 지지단체 (대표자) (1개)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 공동제안자 (60명)

강용정, 강지형, 권덕용, 김병수, 김대훈, 김민주, 김용자, 김이삭, 김주영, 김태영, 김현지, 김현우, 남광우, 남궁하늘, 데스타 아세파 아바디, 도지현, 리안 카티요 타디와 나세, 류기황, 박선주, 박순철, 박영선, 박지영, 박세림, 서민규, 소야 디알로, 손코 은데예 마리엠, 송수종, 신다희, 양지예, 엄민아, 은나래, 이강백, 이부경, 이송희, 이수희, 이영란, 이정화, 이창민, 전서윤, 저스틴 봉쿵구, 조은비, 조슈아 샘푼구 키라보, 조현규, 주은경, 콜린스 오티엔데, 코니 누둥구, 테슬림 케힌데 아요데지, 아템켄 에드몬드, 에베네저 타루빙가, 에반스 베두프라, 오정수, 오태윤, 우승훈, 윤철한, 한승윤, 한재각, 한희정, 허성용, 허예린, 후세이나 압둘라히

첨부. 공동제안자/기관 추가 의견

본 정책제안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내국인, 외국인(아프리카)을 포함한 개인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남긴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첨부합니다. 다만, 해당 의견은 (사)아프리카인사이드의 공식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비자관련 제안

- 회화지도비자 발급대상 범위 확대 :

모국의 공용어가 영어이며 TESOL 수료 또는 국내 석사 이상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라도 회화지도 비자 (E-2) 취득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본국에서 영어 커리큘럼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에 합격해 영어로 학술 연구를 진행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유학생들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 검증된 인재들입니다.

- 유학생 배우자 비자 획득 및 배우자 취업 간소화 :

아프리카 유학생은 국내 대륙 별 유학생 중 가장 높은 고학력(석사 이상) 비율, 가장 높은 이공계 비율, 높은 남성 유학생 비율로 특징지어지며(2022 교육부 통계), 지방에 거점을 둔 과학기술 디아스포라 (STD - Scientific and technical diasporas ; Meyer, 2004)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 나이지리아-대구, 가나-대전, 콩고민주공화국-대구 등). 이는 한국 사회가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 거점 과학기술 인재들이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 내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학 기간 동안 이들의 배우자는 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유학생은 가족 부양을 위해 주기적으로 송금을 해야 하고 이는 유학생 활동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또한 비용, 거리, 시간적 한계로 인해 학위를 마칠 때까지 (혹은 학위를 마친 후에도) 본국에 단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배우자, 자녀와의 장기적 분리는 유학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학이 정주까지 이어지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석사 이상 고학력 인재들에 한해서라도 배우자 비자 발급 및 배우자 취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 개선

- 비자 정보의 공공재화 :

법무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비자 관련 정보는 간혹 한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기술적인 한국어로 서술되어 있고 한글 파일(hwp)로만 다운로드할 수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접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내 한국어 구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해당 정보를 신속히 접

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비자 정보, 혹은 잘못된 비자 정보를 알고 있거나 행정사 또는 불법 브로커에 의존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하이코리아 전화 영어 상담 또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는데, 전화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일부 학생들은 하이코리아 전화 상담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았습니다. 유학생의 취업, 정주에 관련된 정보만이라도 영어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배포하고, 이를 대학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 적극 홍보하여 공공재여야 하는 공공 정보가 사익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및 차별 문제

-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반차별 교육 :

차별 상담 신고 창구를 마련을 건의하는 아프리카인사이트의 제안에 더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차별 교육 확대를 제안합니다. 아프리카 유학생의 대부분이 대학원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생의 전반적 유학 여건에 지도교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GKS 유학생을 제외한 이공계 대학원생들 대부분의 급여는 교수가 산정하는 한편, GKS 유학생의 경우 장학 수혜 중 학교 변경이 불가하여 지도교수 변경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권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유학생이 미묘한 배제의 경험을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교원이 스스로 차별적 언행을 삼갈 뿐 아니라 연구실 내 차별의 방관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을 대상으로 보다 섬세한 반차별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 및 가족 관련 지원

- 차별적 양육수당, 돌봄 서비스 :

유학생이 다른 국내 체류 외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정착하거나 본국의 배우자가 비자 및 노동 허가를 받아 국내에 함께 정주하고자 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자녀 출산 및 양육도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각종 아동 돌봄 혜택이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주를 결심한 유학생도 돌아서게 만드는 차별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치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중부 아프리카 출신 B씨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부터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내국인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온 B씨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서구 국가들의 복지 혜택과 비교하며 결국 가족과 캐나다로 이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부부는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은 물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외국인 아동도 한국인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저출산 맥락에서 한국어를 모국어와 같이 배우며 자라나는 외국인 아동들을 미래 한국 사회의 귀중한 인재로서 인식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커뮤니티 및 연대 강화

- 대사관 없는 아프리카 국가 소규모 유학생 모임 지원 :

재한가나인유학생 GHASKA의 경우, 주한가나대사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유학생회 조직 및 활동이 체계화되어 아프리카뿐 아니라 국내 타 유학생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유학생회는 커뮤니티가 약소한 타 국가 출신 유학생들을 비자 설명회, 창업 설명회, 문화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초대함으로써 함께 아우르는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국가 기반 커뮤니티이기에 타 국가 유학생이 충분한 소속감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대사관이 없는 국가 커뮤니티는 작은 규모, 현실적인 재정 지원 부족,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정기적 모임을 개최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 이같은 소규모 유학생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학생들끼리 지속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NIIED 혹은 한아프리카재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공식 소규모 유학생 커뮤니티는 훗날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인재풀(pool)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교육 지원

- 대학원생 MOOC 한국어 교육 :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증언합니다. GKS 출신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어 학습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한 채, 지도교수와는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가 불편한 대부분의 한국인들과는 단절된 채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취업과 사회 생활에서의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한국어 학습 필요성을 느낀 많은 유학생들은 실제로 대학 내 한국어 수업 및 이주민 지원센터나 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무료 강의에 출석하며 한국어 습득을 시도하긴 하지만 분주한 대학원 생활의 리듬과는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 MOOC/온라인 수업 과정을 유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정주에 유리한 TOPIK 시험을 스스로 준비하고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인권 및 차별 문제

- 아프리카인 불법체포영상,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

동부아프리카 출신 미등록 노동자가 국내 이주민 혐오 정치 단체 구성원에 의해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되고, 노동자의 얼굴도 채 가려지지 않은 채 제압당하는 다소

폭력적인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몇몇 아프리카 유학생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자국민보호연대/국민우선TV YouTube 및 TikTok 참고). 해당 노동자의 인권유린은 물론, 이를 간접적으로 접한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에게도 해당 영상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더해 이와 같은 영상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인권 수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부 단속 이외, 일반 시민이 외국인에게 신분 조화를 요구하고 무력으로 제압하여 경찰서에 넘기고 이를 촬영까지 하여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인간적 행위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차별 금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시 - 대구 대현동 사건, 학생 보호가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 :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부지 앞 돼지머리 진열,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언어적/비언어적 폭력은 경북대 유학생들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대현동에 거주하는 한 경북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은 실제로 자신들의 자녀가 등교길에 현수막을 볼까봐 몹시 걱정했고, 다른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유학생들은 해당 사건으로 심한 우울감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슬림 유학생이 비수도권 연구기관에 큰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한국의 학문적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웃 사회는 그들을 한낱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염려되는 사실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점은 국가와 대학이 학생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몇몇 개인 (유학생들과 연대하는 일부 교수와 학생) 및 시민단체가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여 버겁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정책 제안서의 야근과 조직문화 언급에 관해 :
수많은 아프리카 출신 대학원생들은 스스로 연구실 야근을 매우 자주 하며, 연구실에 한국 학생들보다 더 오래 남아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힙니다. 연구실에서 뛰어남을 인정받아 'OO(나라 이름) 나라 사람들이 성실하고 잘 하더라'는 피드백을 얻어 후배들의 한국 유학길을 순조롭게 해주고 싶다고 말한 학생도 있었고, 한국의 "열심히 일하는 문화"를 특히 좋아한다고 말한 의욕적인 유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야근이나 경직된 조직문화 그 자체라기보다는, 한국의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채용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채용 후에도 차별 대우를 받는 일입니다. 한국 취직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은, 똑같은 양의 업무를 해도 아프리카 사람이니 게으를 거라는 편견에 지나친 감시대상이 되거나, 연봉 협상 시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큰 돈인데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는 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외국인이 한국의 근로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속이려는 상황 등을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장 한국사회에서 변화되기 어려운 야근과 조직문화 언급이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취업 이후에도 조직 내 외국인 직원이 적고 야근이 당연시되는 등의 조직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문구를 수정하여, 학생들의 적응의 어려움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적응의

노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차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의견

- 오랫동안 존재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학생의 전공 분야를 기술 분야로만 국한하지 말고 예술로 확대시키고, 양쪽의 예술가/유학생들이 서로의 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자신들의 작품에 융합시키게 되면 양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쉽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여 한-아프리카 국제교류와 관련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 아프리카 학생의 비자 발급 조건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다르게 제한됩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과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 가나와 같은 영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들은 영어 능력 시험 (예: IELTS)에서 면제되어야 합니다. 가나는 교육 과정 전반에서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학원에서의 파트타임 일자리는 현재 남아프리카 국적만 가능합니다.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의 다른 영어 사용 국가에게도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 노마드 비자와 같은 비자 신청 조건들이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나 다른 대륙에서도 연간 66,000달러를 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평균은 46,000달러입니다).
- 아프리카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 함께 미래를 열어갑시다.
-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서울선언 이후 이행 문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 최근 아프리카 대사들을 초대하는 행사에서 충분한 대화나 상호작용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외교단을 착취하는 일방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참여 전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아프리카 외교단에 적절한 존경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인턴십 관련 문제
현재, D-10 비자만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인턴십 활동을 허용합니다. 학기 중에는 휴학을 하고 D-10 비자로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대부분의 효과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외교부는 D-2 비자 규정을 검토하여 유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이민 정책 하에서는, D-2 비자를 가진 학생이 인턴십을 위해 D-10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유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D-2 비자에서 한 번의 휴학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관련 문제
현재 건강보험 정책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일부 거주 상태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D-10 비자 소지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 졸업한 학생들이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에서 공부한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 인적 교류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세계 시민의 역할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 우리는 세계 시민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의 주체이며 공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더불어 평화롭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지적 토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며 실행하는 만큼 힘을 얻습니다.
-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해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점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프리카 유학생 원활한 비자 발급 및 유학생 지원 제도 확대를 요청합니다.
- 필요한 인재들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정부의 지원 없이, 높은 등록금을 내고 박사 학위를 자비량으로 마쳤습니다. 자부담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프리카 학생들과 모든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국 유학의 본 목적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문화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만남 지원, 현지 적응을 위한 한국인 멘토 매칭, 졸업 후 한국에서 더 체류하고 싶은 졸업생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유학 후 본국으로 귀국 후에도, 한국에서 도움 받은 좋은 경험은 향후 한국과 해당 국가의 교류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제가 경험한 아프리카(부르키나파소, 기니, 코트디부아르 등)에는 음악과 춤, 그림 같은 문화와 예술이 날마다 도처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커뮤니티가 더욱 활기를 얻고, 그 문화가 한국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켄베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의 음악, 춤의 예술적 힘이 한국의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망한 아프리카 유학생을 보다 많이 선발함으로써 그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학생의 인권이나 차별, 처우 문제 등 보편적 관점에서의 내용이면 찬성하지만, 지원이나 취업 등 유학생의 편의 관점의 내용에서 연명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아프리카 학생들이 특별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한국의 기회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되어 유학생 자체가 적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정부 장학금에 아프리카 학생들 쿼터를 늘리면 혹시라도 다른 개도국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GKS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 지원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차원

에서 다른 유학생들과 동등한 환경과 대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안서의 논조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어로 제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한국에서 아프리카 유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동등해지려면 한국 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학생들이 한국에서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olicy Recommendation

**Civil Society Policy Recommendation
on the Occasion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 Enhancing Support for African Students in Korea >**

1. Background

1.1. The African Continent as a Determinant of the World's Future

- Africa is a youthful continent, with over 60% of its population under the age of 35. It is projected that by 2100, nearly half of the global youth will originate from Africa.
- Beyond its youthful demographic, Africa possesses significant potential through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rich cultural diversity. Countries worldwide are actively competing to gain the favor and trust of African nations.
- As the frontline of global crises such as climate change, migration, and infectious diseases, Africa's trajectory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the future of these challenges and the global landscape.

1.2. Migration as a Driving Force for Social Diversity, Innovation, and Economic Sustainability

- Countries like Canada, Germany, Japan, and Taiwan have implemented policies to attract, employ, and retain international students as a response to declining birth rates and shrinking labor forces.
- Remittances sent by migrant workers to their families back home are vital for national and household economies in the Global South. In particular, remittances from African migrants are comparable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exceed the valu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se remittances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Migrants, who bring diverse perspectives, technologies, and cultures, enrich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of their host societies while also spreading new ideas and values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 In South Korea, the working-age population is expected to decline starting in 2028, with increased workforce needs anticipated, especially in sectors like healthcare, welfare, manufacturing, retail,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us, there is a need for immigration policies aligned with the country's

economic and demographic structure, alongside efforts to promote diversity and inclusiveness.

1.3. While Efforts Have Been Mad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Africa Remain Stagnant

-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frica dates back to the 1950s, with the deployment of Ethiopian troop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frica gained momentum with the first Korea-Africa Forum, a ministerial-level diplomatic framework, in 2006. Since then, South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Africa has increased more than tenfold compared to 2006, and the number of African residents in South Korea now exceeds 20,000.
- However, South Korea's direct investment in Africa remains stagnant at around 1% of total direct investment. Additionally, around half of South Koreans express negative perceptions regarding migration from Africa. To establish equal partnerships and foster vibrant exchanges in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greater efforts and changes are necessary.

1.4. Challenges Faced by African Students in South Korea Limit Their Potential to Enhance Korea-Africa Relations

- African students, who tend to prefer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have notabl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Korea's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which is primarily concentrated in Asian students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However, many African students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or move to North America or Europe after graduation due to challenges such as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a lack of information about employment processes, inflexible administrative systems, and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or nationality.
- Supporting the employment and settlement of African students, who play a key role in the African community in South Korea, can strengthen the African community overall and enhance the diversity of the African population in Korea.

1.5. The 2024 Korea-Africa Summit: An Opportunity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 The inaugural 2024 Korea-Africa Summit presents an opportunity to redefine the stagnant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frica. To fulfill the summit's slogan, "Building a Future Together," closer connections between Koreans and Africans are essential.
- Only 1% of foreign nationals in Korea are from Africa, indicative of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stagnant relationship. For future growth, a diverse range of individuals is needed to lead, advocate, and execute initiatives that deepen the relationship.
- While many countries have made numerous promises to Africa, there is often little assurance of proper implement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monstrate sincerity by fulfilling commitments made in previous Korea-Africa forums, such as expanding interpersonal exchanges through government-sponsored scholarships, job opportunities, and exchange programs in science and technology.

1.6. Recommendation for the 2024 Korea-Africa Summit

- Africa Insight, an organization advocating for "a world where Africans are respected, free, and empowered," welcomes the hosting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We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 policies supporting the academic pursuits, employment, and settlement of African students, laying the foundation for a new era in Korea-Africa relations.
- African students with adequate adaptation time and skills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domestic economy, society, culture, and Korea-Africa relations by staying longer in Korea and engaging in various fields. They can also leverage their experiences to make a greater impact wherever they go after leaving Korea.
- The discussions and experiences from this policy implementation will be valuable assets as we move toward a more inclusive and diverse Korean society.

2. Current Issues and Potential

2.1. Low Proportion and Skewed Composition of Africans in South Korea

- Although the number of Africans residing in South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their proportion among all foreigners remains below 1%, in part due to geographical limitations, visa policies, and stagnant Korea-Africa relations.
- The majority of African residents in South Korea are on student visas (D-2) and miscellaneous visas (G-1), mainly issued to refugee applicant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However, the proportion of visa holders for occupational activities or long-term residence, such as special ability visas (E-7), resident visas (F-2), and permanent resident visas (F-5), is very low.

※ Note: For comparison, as of June 2023, there were 21,239 Africans residing in Japan, representing 0.66% of all foreigners, which is lower than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was similar, at 2,834. However, the proportion of those holding visas for professional activities and long-term residence is much higher (1,686 for technology, specialist in humanities, and international service visas, 5,708 for permanent residence, and 1,187 for long-term residence).

Year	Total	Student (D-2)	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E-7)	Resident (F-2)	Permanent Resident (F-5)	Miscellaneous (G-1)	Percentage of Africans in Domestic Foreign Residents
2013	10,880	1,336	147	116	56	1,253	0.69%
2014	12,744	1,519	149	171	60	2,383	0.71%
2015	14,185	1,788	175	214	71	3,834	0.75%
2016	16,073	2,057	180	255	75	5,340	0.78%
2017	18,198	2,400	209	317	87	6,186	0.83%
2018	19,916	2,474	208	402	90	7,180	0.84%
2019	20,671	2,491	215	492	107	7,159	0.82%
2020	19,065	2,070	222	534	117	6,460	0.94%
2021	19,258	2,301	257	583	143	5,650	0.98%
2022	22,436	2,706	297	678	195	5,497	1.00%

Source: Ministry of Justice. (2022). Immigration and Foreign Residents Statistics
- Status of Foreign Residents by Nationality (Region) and Visa Category.

- While the number of Africans living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small, their perspectives, skills, and culture are invaluable resources for South Korea's transition to a diverse and inclusive society. Some Africans have already introduced their cultures to Korea through restaurants, cultural activities, and other avenues. Similarly, if more Africans participate in various sectors in Korea, they can infuse new perspectives and values into society, cultu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2. Negative Perceptions of Africa Due to Limited Interaction and Information

- In a society where daily and varied interactions with Africans are scarce, the focus on African refugees and poverty issues in African countries has contributed to negative perceptions of Africa.
- In a 2017 survey, South Koreans were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view migrants from the Middle East and Africa negatively compared to those from other continents, such as North America and Europe (66.7% for the Middle East, 49.8% for Africa).
- In a 2023 open-ended survey about images associated with Africa, the most common responses were poor and backward (25.8%), followed by nature-related images like grasslands and rainforests (25.2%), and hot and barren (21.9%). Less than 0.5% of respondents mentioned positive images, such as "potential for development" or "abundant resources."
- Many Africans in Korea report experiencing racism in daily life, such as in housing and employment, yet there are no laws or channels for reporting and counseling, which should serve as basic safeguards.

"Many real estate agencies are racist. I wanted to live in different neighborhoods, but I faced so many rejections that I ended up moving to areas where there are more foreigners. So every time I look for a place, I think, 'Oh, I have to look for another place, and I'll feel the same way.' I might find ten places I like, but nine of them will reject me. I can't live where I want, and it feels like the landlord is choosing me."

- B, from Central Africa, studied as a GKS Scholar and now works in South Korea

2.3. Low Allocation of Government Scholarships (Global Korea Scholarship) to Africa

- Despite several promises at past Korea-Africa forums to expand scholarships for African students, the number of scholarships allocated for Africa under the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program has remained at approximately 110, which constitutes only about 15% of the total number of scholarships awarded.

“I don't know exactly how GKS quotas are allocated, but seeing the low number for my country made me think that South Korea considers it less of a priority and that the relationship isn't very close.”

– A, from East Africa, studied as a GKS Scholar and now works in South Korea

Previous Commitments at Korea-Africa Forums to Enhance Interpersonal Exchange:

- Expand the Government Invited Scholarship Program (GKS) (2nd KAF, “Framework for Korea-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2009-2012”).
- Expand Korea’s scholarship programs in which African stu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able to participate; Exchange scholarship programs in which African and Korean students are able to participate; (3rd KAF, "Action Plan for the Third Africa-Korea Forum 2013-2015").
- Further Recognizing the need to promote and encourage people-to-people exchanges to enable African countries and Korea to develop a comprehensive partnership (4th KAF, "Addis Ababa Declaration").
- Continue to promote scholarship programs for African students and facilitate exchange programmes and joint research between Korea and Africa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centres of excellence; (5th KAF, "Framework of Cooperation 2022-2026").

- For the undergraduate Global Korea Scholarship (GKS-U), often only about a quarter of African countries are represented, and the allocation per

country tends to be small. Despite the popularity of the GKS program, which provides long-term coverage for tuition and living expenses, the limited or absent selection of candidates from specific countries can hinder African youths from planning to study in Korea in the long term.

Year	2021		2022		2023		2024	
Degree	Undergraduate	Graduate	Undergraduate	Graduate	Undergraduate	Graduate	Undergraduate	Graduate
Total	125	663	125	648	81	650	86	800
Africa T/O (%)	19 (15.2%)	92 (13.9%)	19 (15.2%)	96 (14.8%)	14 (17.3%)	98 (15.1%)	15 (17.4%)	111 (13.9%)
Number of Targeted African Countries	14	38	14	32	14	34	14	34

Source: GKS selection announcements from Study in Korea.

- Aligning with the Study Korea 300K Project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2023, increasing investment and support for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historically received less assistance,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goals such as attracting international talent and enhanc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 African students' strong preference for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aligns closely with the sectors the Korean government aims to develop, such as manufacturing and high-tech industries.

Subject Interest

Which subject area do you want to study?

Health & Medicine	21.00%
Business & Administration	15.80%
Engineering	11.92%
Computer Science & IT	11.42%
Other Social Science	6.40%
Natural Science	5.67%
Law	4.73%
Art & Design	4.65%
Humanities & Culture	4.18%
Teaching & Education	3.65%
Tourism & Hospitality	3.18%
Media & Communications	3.10%
Languages	2.13%
Transport & Logistics	1.55%
General Studies	0.61%
Total	100.00%

Source: International Student Recruitment

2.4. Difficulties in Studying and Adapting in Korea

- African students often have less prior knowledge of Korea compared to international students from other continents, and they tend to face significant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They frequently struggle to adjust to school and academics, as the basic conversational Korean learned in language courses is insufficient for keeping up with classes taught in Korean. Additionally, there are few courses offered in English.
- This has led many students to migrate to North America or Europe, where they are more familiar with the language and have a better chance of finding employment and settling down after completing their degree programs on government scholarships. This contradicts the intention of the GKS scholarship to foster “Pro-Korea leaders” and is not aligned with the goal of moving towards a more inclusive and diverse society.

“At the beginning of the language program, everyone says they’re going to study and work in Korea, but when they start their degree program, they struggle with relationships and a sense of belonging. Upon finishing their studies, they plan to go to another country for another degree or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However, once they start working, some people find it acceptable because they can earn a living in Korea.”

– A, from East Africa, studied as a GKS scholar and now works in Korea.

“Due to the language barrier, difficulties in finding a job, and the burdens of the job search period, many international students leave Korea for places like France, Germany, and Canada. I think it’s a poor investment for Korea to educate foreign students at the taxpayers’ expense, only for them to move to other countries.”

– C, from West Africa, studied as a GKS scholar and now works in Korea.

- Despite numerous challenges and inadequate support programs from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some African students have managed to adapt to their studies and life in Korea through club activities, religious activities, interactions with African communities, and GKS mentoring.

2.5. Challenges in Job Search and Employment

- Many Africans face challenges in finding employment due to high Korean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narrow interpretations of major-related qualifications, lack of internship experience, and racism.

“When students first come to Korea, they often intend to study and work here. However, by the time they graduate, they still feel like foreigners, regardless of how fluent they are in Korean. They don't believe they can fully integrate into Korean life or pursue a meaningful career here.”

– C, from West Africa, studied as a GKS Scholar and now works in Korea.

- Few Korean companies hire foreigners, including Africans. The paperwork required for an employer to change an employee's visa from a job seeker visa (D-10) to a special ability visa (E-7) is excessive, and the review process is often complicated and strict, which frequently prevents successful job placement for Africans. Furthermore, career choices are sometimes restricted due to the visa-issuing authority's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related to academic degrees or native languages.
- Although many African countries use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only South African nationals among African countries are eligible for the conversation instruction visa (E-2), needed to teach foreign languages. This limits African migrants' ability to work and settle in Korea, contributing to feelings of discrimination.

※ Note: In 2022, a Ugandan humanitarian resident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challenging the restrictions on obtaining an E-2 visa, arguing that "denying employment based on nationality constitutes discriminatory treatment without reasonable justification, thus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equality."

- After employment, many Africans face challenges with Korean workplace culture, such as a low proportion of international employees and a hierarchical structure. These issues limit the potential of foreign employees, including Africans,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Korean companies.
- African migrants, with their proficiency in English and French as well as their familiarity with business cultures in those languages, can contribute not only to the general operations of companies but also to their globalization.

3. Policy Proposal to Support the Adaptation, Employment, and Settlement of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3.1. Expand GKS Scholarships for Africa and Strengthen Targeted Assistance for Adaptation

- **Expand GKS Scholarships for Africa:** We propose expanding the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program for Africa, increasing the annual selection from the current average of 110 recipients and broadening the range of participating countries. This expansion would reflect the revitalized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frica anticipated from the upcoming summit and diversify the international student population, which is currently focused on Asia.
- **Enhance Targeted Assistance:** We propose focused assistance measures for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who often face greater language and cultural challenges compared to other students. These measures include supplementary language courses, mentoring programs,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from the selection process through their transition to Korea and ongoing stay. These support mechanisms can be effectively facilitated through collabora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th the various African communities established in Korea.

African Communities Active in Korea:

- African Voices in Korea (AVOIK)
- Ghanaian Students in Korea and Associates (GHASKA)
- Ethiopian Students Association in Korea (ESAK)
- Kenya Community in Korea (KCK)
- Ugandan Community in South Korea (UCSK)
- Rwanda Community Abroad - South Korea (RCA-SK)
- Association of Tanzanians in the Republic of Korea (TANROK)
- Zambia Korea Network (ZKnetwork)
- SAMBA-COREE (Gabonese Community)
- Congolese Elite Community in South Korea (DECOC)

- Burundian Diaspora in Korea (BD-Korea)
- Nigerians in Diaspora Organization (NIDO)
- Nigeria Students' Association
- Liberian Association in South Korea
- Sierra Leonean Community
- SEN CORÉE (Senegal Community)
- Zimbabwe-Korea Diaspora Community
- South Africa and Cameroon have several small communities
- Other countries lack officially organized communities

3.2. Strengthening Job Placement for African Students

- Internship Program: Provide internship opportunities for African students during their degree programs and after graduation to gain practical experience and exposure to Korean society, enhancing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job market. This includes establishing new internship programs and connecting with existing initiatives, such as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s (KOICA) Young Professionals, university-industry partnerships,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t the local level, to offer a wide range of op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Note: For internship programs to be effective, a minimum duration (six months or more) should be guaranteed, and tasks should be screened (avoiding simple tasks such a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fficient training and support should also be provided to host compan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 Regional (Africa) Job Fair: Organize a job fair targeting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volved in or interested in entering Africa, or those interested in hiring foreign nationals. This fair would provide relevant employment information to African job seekers. Additionally, establish support services for African job seekers for various aspects of the job search, such as resume writing and interview preparation, at local youth centers and African-affili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 Work Visa Improvements: During the review of work-related visa applications, it's crucial to ensure the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and respect for agreemen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3.3.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African Students to Work and Settle in Korea

- **Support for Globalization and Foreign Recruitment in Domestic Companies:** To facilitate the globalization of domestic companies and their organizational cultu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for language training and consulting. Additionally, simplify the documentation required for hiring foreign workers to reduce the burden on employers.
- **Anti-Discrimination Law and Support Centers:** Enact anti-discrimination laws to protect migrants from the pervasive racism in South Korean society and provide a basis for official responses. Establish reporting and counseling centers, not only within law enforcement but also within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Africa Founda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local foreign resident centers, where Africans can seek help when facing discrimination and legal restrictions.
- **Balanced Perception of Africa:** Promote balanced perceptions of Africa by expanding awareness-raising content with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nhancing monitoring and education to prevent media depictions that degrade Africa or overemphasize negative images of poverty, disease, and hunger.

4. Conclusion and Expected Benefits

Meeting a person in life,
is actually an enormous event in life.
because (s)he coming with his past, present and his future
because one's whole life comes into the other's

— Jung Hyunjong, "The Visitor"

4.1. The First Steps Towards an Inclusive and Diverse Society

- Interpersonal exchanges involving different perspectives and ideas have immense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potential. However, many Africans encounter barriers in Korean society and often leave soon after arriving. If policies and environments are established that allow Africans to live and integrate comfortably, individuals from around the world may view Korea as a safe and welcoming place, leading them to visit more often and stay longer.
- Supporting African students, who are key members of the African community in Korea, helps them adapt and pursue long-term goals, positively impacting the overall empowerment and stability of the African community in Korea.

4.2. “Pro-Korea Leaders” or Korea-Africa Mediators with Knowledge, Experience, and Networks

- It is difficult to make one's voice heard through academic achievements alone. African students who continue their studies with policy support and gain experience through various work, 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will become mature global citizens who understand Korea from anywhere in the world.
- If African students remain in Korea to work after graduation, they can naturally foster stronger connections between Africa and Korea.

4.3. Responding to Changes in Korean Demographics and Labor Market

- With appropriate policy support, South Korea can effectively address its population crisis if African students complete their degrees and become active in the labor market.
- In addition to bolstering the labor force, having Africans with diverse backgrounds and perspectives working in companies can facilitate corporate globalization. Companies that learn to interact with African employees will enhance their global communication capabilities at an organizational level.

About Africa Insight (africainsight.org)

Africa Insight, established in April 2013, is a nonprofit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organization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dvocacy in African-related topics and regions. Since its inception, Africa Insight has conducted a variety of activities aimed at improving awareness of Africa, advocating for rights, building capacity, and foster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organization works in solidarity with various African communities living in Korea.

Major Activities

- UBUNTU Afric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ESCO Sustainable Education (ESD) Certified Project
- Seoul Africa Festival: The largest annual African cultural festival in Korea
- African Voices in Korea: A community platform for Africans residing in Korea
- UBUNTU Africa Research Center: Focuses on improving awareness of Africa and conducting foreign policy research

Research and Policy Recommendation

- Nov, 2020: Africa Awareness Raising Strateg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in Africa
- Mar, 2022: A Civil Society Policy Recommendation for the 5th Korea-Africa Forum
- Aug, 2023: Research on Promotional Strategies for the 2024 Korea-Africa Summit and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 Awareness

5. Co-proposers

- Organizations/Institutions (Representative) (22)

Korean Advocates for Global Health (KAGH) (Heejeong Han), Fair and Peace Academy (Jaeok Chang), MENS-K Express Global (Kwesi Mensah), VLEES (Hyunkyu Daniel An), Ten for One (Sanghoon Han), Samba-Corée (M. Moussavou Boussougou Milandu Keith), SUN Korea Asset (Yeonghwan Lee), Seoul Foreign Resident Center (Donghoon Kim), African Dance Company TAGG (Eunjung Kwon-Lee), ASIA Fairtrade Network (Kangbaek Lee), Eroom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ECIA), Ghanaian Student in Korea and Associates (GHASKA) (Richard Kabutey), Foreigners in Korea Support Center (Soyoung Lee), Djembecola (Boseop Shin), Jerrybag Inc. (Joongyeol Park), Rwanda Community Abroad - South Korea (RCA-SK) (Dieudonne Theos Benimana), Kenya Community in Korea (KCK) (Wyckliffe Francis), Ethiopian Student Association in Korea (ESAK) (Eyob Wondu), Zimbabwe-Korea Diaspora Community (Jafer Orein Francis), Jincheon Housing Welfare Center Toad Housing (Deoksoo Kim), Kerkerfield (Youngsoon Choi), Kijamitable (Sohee Eom)

- Supporting Organization (1)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PIDA) (Jaekwang Han)

- Individuals (60)

Yongjung Kang, Jihyung Kang, Deokyong Gwon, Eunjung KwonLee, Byungsoo Kim, Daehoon Kim, Minjoo Kim, Yongja Kim, Yisag Kim, Jooyung Kim, Taeyoung Kim, Hyunjee Kim, Hyunwoo Kim, Kwangwoo Nam, Haneul Namgoong, Jihyun Do, Desta Asefa Abadi, Katiyo Ryan Tadiwanashe, Kihwang Ryu, Youngsun Park, Jiyoung Park, Serim Park, Sunju Park, Soonchul Park, Mingyu Seo, Soya Diallo, Ndeye Marieme Sonko, Soojong Song, Dahee Shin, Jiye Yang, Mina Eom, Narae Eun, Kangbaek Lee, Bugyeong Lee, Songhee Lee, Soohye Lee, Youngran Lee, Jeonghwa Yi, Changmin Lee, Seoyun Jeon, Justin Bonkougou, Eunbi Cho, Joshua Kirabo Sempungu, Hyungue Joe, Eunkyung Joo, Collins Otiende, Connie Ndungu, Teslim Kehinde Ayodeji, Atemnkeng Edmond, Ebenezer Tarubinga, Evans Bedu-Prah, Jeongsoo Oh, Taeyoon Oh, Seunghoon Woo, Cheolhan Yoon, Seungyoon Han, Jaegak Han, Heejeong Han, Sungyong Heo, Yerin Heo, Hussaina Abdullahi

Attachment: Additional Opinions from Co-Proponents

In relation to the topic of this policy recommendation, we have summarized and attached the opinions left by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individuals (Africans) and organizations, to convey a broader range of perspectives to the governme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opinions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stance of Africa Insight.

Visa Related Suggestions

- Expanding Eligibility for Conversation Teaching Visas:

It is necessary to allow students whose native language is English and who have completed TESOL certification or graduated from a master's program in Korea to obtain an E-2 conversation teaching visa.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already completed an English curriculum in their home countries and have been accepted to Korean universities to conduct academic research in English are proven talent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 Simplifying Spouse Visa Acquisition and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are characterized by having the highest proportion of highly educated individuals (master's degree or higher), the highest propor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and a high proportion of male student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different continents in Korea (2022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s). They also form scientific and technical diasporas (STD - Scientific and Technical Diasporas; Meyer, 2004) based in local regions (e.g., Nigeria-Daegu, Ghana-Daejeo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Daegu). This indicates that the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y is densely populated with scientific and technical talents that Korea actively seeks to attract. However, during their study period, many of their spouses remain in their home countries, requiring students to send remittances regularly to support their families. This imposes a significant economic burden on the students and often results in them not being abl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even once until they complete their degrees (or even after completing their degrees) due to the costs, distance, and time

constraints, causing psychological burdens. Long-term separation from spouses and children not only degrades the quality of their study experience but also poses a significant obstacle to settling down in Korea after gradu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dures for spouse visa issuance and employment permits for highly educated individuals with a master's degree or higher.

Improv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 Publicizing Visa Information:

Visa-related information frequently updated on the Ministry of Justice's HiKorea website is often written in highly technical Korean, which even Koreans may find difficult to understand. It is also available only as a Hangul (hwp) file, making it challeng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to access. Especially for African students, who typically have fewer Korean speakers in their communities, accessing this information quickly without external help is virtually impossible. Many African students rely on outdated or incorrect visa information or depend on administrative services or illegal brokers, as found in the researcher's investigation. Although HiKorea provides telephone English consultation, it is not always a perfect solution, as the information given can be insufficient or incorrect, leading to low trust in the service among some students. It is crucial to provide employment and settlement-related information in English as PDF files and actively promote these through universities and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ies to prevent public information, which should be a public good, from being exploited for private gain.

Education and Discrimination Issues

-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for Faculty:

In addition to the African Insight's suggestion of establishing a discrimination consultation reporting channel, it is proposed to exp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for faculty. Considering that most African international students are graduate students, the influence of academic advisors on their overall study conditions is significant. Most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except GKS students, have their salaries determined by their advisors, and GKS students cannot easily change advisors due to scholarship conditions. Given this firm power dynamic,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for students to report subtle exclusion

experiences to external institutions. Therefore, detaile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for faculty is necessary to ensure that faculty members do not engage in or overlook discriminatory behavior in labs.

Childcare and Family Support

- Discriminatory Childcare Allowances and Services:

When international students marry other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settle down or bring their spouses from their home countries to settle in Korea, they are likely to have and raise children in Korea. However, the fact that various childcare benefits do not apply to foreign children can dete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settling in Korea. For instance, B, a Central African who completed a bachelor's, master's, and Ph.D. in Korea and married a foreign woman, decided to leave Korea after having two children. The inability to use affordable childcare servic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on the same terms as nationals was a significant shock to B, who had lived in Korea for over ten years. This, compared to welfare benefits in Western countries, ultimately led to his decision to move to Canada with his family. Foreign couples are rightful members of society, fulfilling their tax obligations t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foreign children should have the same rights as Korean children. Efforts to treat foreign children growing up learning Korean as a native language without discrimination as valuable future members of Korean society are crucial,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low birth rates.

Community and Solidarity Enhancement

- Support for Small International Student Groups from African Countries without Embassies:

The Ghanaian Students in Korea and Associates (GHASKA) in Korea, supported by the Ghanaian Embassy, serves as a model for other African and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s in Korea. This well-established student association invites students from countries with smaller communities to various events such as visa and startup seminars and cultural events, effectively embracing them. However, because it is a country-based community, students from other countries may not feel fully included. Communities from countries without

embassies face difficulties holding regular meetings due to their small size,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lack of information. NIIED or the Korea-Africa Foundation should take a more active interest in supporting these small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ies to grow and sustain themselves. Informal small international student communit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valuable talent pool that can contribut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ir respective countries.

Language Education Support

- MOOC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Graduate Students:

In over 70 interviews conducted by the researcher, most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difficulty making Korean friends. Most African students, except for GKS students, do not go through Korean language learning courses, communicating with their advisors in English and feeling disconnected from most Koreans who are uncomfortable with English. This lack of belonging affects their confidence in employment and social life. Many students attend Korean language classes at universities, migrant support centers, or churches but often give up due to the demanding rhythm of graduate school lif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Korean MOOC/online courses tailored to individual lifestyles, allowing students to prepare for the TOPIK exam and freely learn necessary Korean for daily life.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Issues

- Illegal Arrest Videos of Africans, Indelible Trauma:

Recently, videos showing the violent arrest of an undocumented worker from East Africa by members of an anti-immigrant political group were circulated in several African student communities on social media (refer to Citizens' Coalition for National Protection/People First TV YouTube and TikTok). These videos not only violated the worker's human rights but also shocked African students who saw them. Such videos could create a very negative perception of Korea's human rights standards among global audiences. The government must strongly prohibit private citizens from demanding identification, forcibly detaining foreigners, and using such footage for political propaganda outside of official Ministry of Justice operations.

- Concrete Example Related to the Anti-Discrimination Law - Daegu Daehyeon-dong Incident: What If Student Protection Is Not Prioritized?: Residents' continuous verbal and non-verbal violence toward Muslim students, displaying pig heads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of a mosque in Daehyeon-dong, Daegu, caused deep hurt and disappointment amo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s. One African student living in Daehyeon-dong worried about his children seeing the banners on their way to and from school, and other African Muslim students reported severe depression due to the incident. Despite Muslim student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regional research institutions and Korea's academic development, local communities consider them potential criminals. The more concerning issue is that the state and universities are not fulfilling their duty to protect students from violence, leaving some individuals (professors and students who stand in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civic groups to take on this responsibility.
- Mention of Overtime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Existing Policy Proposals:
Many African graduate students interviewed reported frequently working overtime in their labs and often staying longer than Korean students. Some students said they wanted to be recognized for their hard work to help future students from their countries study in Korea more smoothly, while others expressed a particular fondness for Korea's "hardworking culture." Interview data analyzed by the researcher suggest that African students' main concern is not the overtime itself or the rigid organizational culture but the prejudice that they will not adapt to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leading to fewer job opportunities or discriminatory treatment even after employment. Graduates with work experience in Korea testified that they were subject to excessive surveillance due to stereotypes about laziness, faced discriminatory comments during salary negotiations, and were sometimes deceived regarding severance pay. Therefore, if the mention of overtime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policy proposal does not lead to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it is suggested to revise the phrase "...difficulties due to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culture, such as few foreign employees and a culture of overtime..." to focus on the discrimination that undermines efforts to adapt rather than the

adaptation difficulties themselves.

Other Suggestions

- Thank you for recognizing and addressing long-standing issues appropriately.
- Do not limit international students' majors to technical fields but expand them to the arts. Allowing artists from both sides to experience each other's art and integrate it into their works will positively impact both societies.
- Given the difficulty individuals face in bearing the costs due to physical distance, expand cultural and artistic support projects related to Korea-Africa international exchanges.
- Visa conditions for African students are restricted differently from those for students from other regions. We hope they can be treated fairly like students from other regions.
- English-speaking African countries like Ghana should be exempt from taking English proficiency exams such as IELTS. Ghana uses English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throughout their education. Part-time jobs in English academies should not only look at students from South Africa but also be open to other English-speaking countries like Ghana.
- Visa application conditions, such as the nomad visa, should be reconsidered. Not many people in Africa or other continents earn \$66,000 annually (the average in Korea is \$46,000).
- It is crucial and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ies supporting African students.
- Let's open the future together.
- We want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documents following the Seoul Declaration of the 5th Korea-Africa Forum.
- There are concerns about inviting African ambassadors to events without providing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dialogue or interaction. This trend risks being seen as exploiting the African diplomatic corps and could undermine long-term engagement prospect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ould enforce guidelines ensuring adequate respect and significance for the African diplomatic corps in Korea.
- Issues related to internships: Currently, only the D-10 visa allows proper and effective internship activities. During the academic term, students must take a leave of absence and re-enter the country with a D-10 visa,

creating a significant burden. Most effective internship programs require at least three month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ould review D-2 visa regulations to allow international students to participate in internships during their academic stay. Under current policies, students must change to a D-10 visa, which is financially burdensome. D-2 visa holders should be allowed at least one leave of absence for internships without having to re-enter the country with a different visa.

-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s: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ies calculate premiums based on income and property. Some resident statuses qualify for premium reductions. D-10 visa holders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reductions, especially recent graduates who may struggle to meet the average premium requirements.
- Provide opportunities for African students who studied in Korea to work in Korea.
- Facilitate the role of global citizens through human exchanges and regional solidarity.
- We are global citizens. We are agents of cultural diversity and coexistence.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made to create an intellectual foundation for peaceful thinking and living. Knowledge leads to insight, and action generates strength.
-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various African countries and gradually invest in countries with potential for development to serve Korea's national interests.
- Request for the smooth issuance of visas for African students and expansion of support syste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 Ensure that essential talents are not driven away from Korea due to unfair treatment.
- I completed my Ph.D. without government support, paying high tuition fees out of my pocket. Broad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for privately funded students. This would greatly help African students and all nations.
- Various support is needed to allow African students to focus on their studies, the primary purpose of studying in Korea. Programs that assist with language and cultural adaptation, such as meetings with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in similar situations, matching with Korean mentors for local adaptation, and support for graduates who wish to stay in Korea, are necessary. Good experiences of receiving support in

Korea can positively influence futur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heir home countries.

- In African countries I have experienced (Burkina Faso, Guinea, Côte d'Ivoire, etc.), culture and arts such as music, dance, and painting are prevalent daily. Actively supporting African students can revitalize African communities and introduce their culture to the Korean public, ensuring the right to enjoy diverse cultures. As a djembe player, I am confident that the artistic power of African music and dance can positively impact various social issues in Korea. Selecting more promising African students can lay the groundwork for this.
- While I agree with the general perspective on human rights, discrimination, and treatment issues for students, there are concerns about supporting and employing students purely for their convenience.
- I am curious whether the reason African students need special support is because they are excluded from information about opportunities in Korea. Would increasing the quota for African students in government scholarships reduce opportunities for students from other developing countries?
-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specific program support like GKS, it is better to frame the proposal to demand equal conditions and treat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 I am not sure if I can express my opinion well in English, but I have a strong question about the term "strengthening support" for African students in Korea. To have an equal relationship with Africa, we ne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Korean students in Africa and African students in Korea.

AFRICA INSIGHT

Change the Paradigm surrounding Africa



Africa Insight (Established at 2013)
Non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
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Africa Insight works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surrounding Africa
through advoc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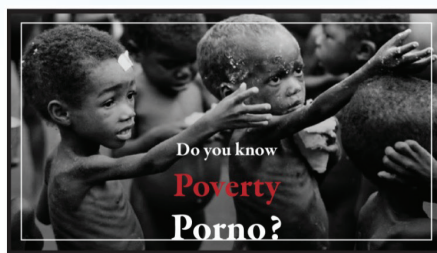
VISION

Where African people are respected,
free, and have independence.



Education & Cultur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oul Africa Festival
Book Publishing
Contents (Article, Video) Creation



Campaign & Advocacy

End Poverty Pornography
Anti-Discrimination
Media Monitoring
Policy Recommendation



Africa Leadership & Exchange

Africa Young Entrepreneur Support
(Y.E.S) Project
Youth Exchange Program
Africa Information Sharing Group

제출일자 : 2024년 5월 17일 (금)
Date : May 17, 2024

제안기관 :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Proposer : Africa Insight

수신기관 : 대한민국 외교부
Recipi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시민사회 정책제안서
<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

Civil Society Policy Recommendation
on the Occasion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 Enhancing Support for African Students in Korea >